

볼거리·먹거리 대폭 확충 마랑 놀토수산물시장 다시 난다

지난해 23억원 매출 대박

수산물 할인행사 늘리고

관광상품 경쟁력 높이기 박차

마랑 놀토수산물시장이 한층 업그레이드 된다. 강진군은 올해 마랑항에서 매주 토요일 열리는 놀토수산물시장의 콘텐츠를 강화, 남해안 최고의 관광레저형 시장이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확고하게 한다는 전략이다.

7일 강진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해 강진의 대표적 관광상품으로 떠오른 마랑놀토수산물시장의 경쟁력을 높이는 다양한 콘텐츠를 보강, 선보일 계획이다.

놀토수산물시장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마랑항, 청정 바다에서 나오는 제철 수

산물, 다양한 이벤트와 즐길거리를 갖추면서 지난해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강진의 대표주자로 떠올랐다.

놀토수산물시장은 지난해의 경우 4월 1일 첫 개장한 뒤 11월 25일까지 매주 토요일과 청자축제 기간 등 44차례 운영되면서 23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 기간 시장을 찾은 방문객은 27만명에 달했고 하루 평균 5200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도(매출 20억·방문객 24만명)에 대비, 매출은 8%, 방문객은 10% 이상 늘어났다.

강진군은 이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관광객들 수요를 반영하고 지리적 장점을 활용한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과 이벤트로 여행객들 발길을 사로잡겠다는 구상이다.

당장, 기존 관광객들에게 호응이 좋은 제철 수산물 할인행사를 늘리고 유명 셰프

를 초청, 수산물 음식 시식회를 개최하는 등 새로운 행사를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주기적인 운영평가보고회와 관광객 대상 만족도·설문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배모양의 포토존 및 휴게공간을 새롭게 단장, 볼거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최고 신선·최고 품질·최고 저렴 등 ‘3최’를 내세우고 ‘수입산·비브리오패균’ 없는 ‘3무’를 실천하는 운영전략은 한층 강화하면서 소비자들에게 감성과 추억을 제공하는 시장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확고하게 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는 게 강진군 복안이다.

강진군 관계자는 “올해 ‘강진으로의 초대’라는 슬로건에 따라 강진을 찾는 여행객들이 반드시 찾는 명품 테마시장으로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i@

강진쌀 美수출길 넓어진다

한국바이오플랜트 등과

즉석밥 수출 확대 업무협약

강진산 쌀의 미국 수출길이 넓어진다. 7일 강진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2일 영동농장농조합법인, ㈜한국바이오플랜트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강진산 유기농쌀로 만든 즉석밥 미국 수출 확대를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강진군은 강진 농민들과 신진면 영동농장에서 생산한 유기농 쌀을 ㈜한국바이오플랜트에 공급, 즉석밥 원료로 쓰일 수 있도록 행·재정적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 협력하고 ㈜한국바이오플랜트는 미국 농무성(USDA)인증을 획득한 강진산 유기농 쌀의 미국수출 및 가공식품 개발을 통한 판매 촉진에 힘을 쏟기로 했다.



강진군은 최근 강진산 유기농 쌀로 만든 즉석밥 미국수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강진군 제공>

영동농장은 전국 최대 규모의 유기농인 중 쌀 단지를 보유한 곳으로, 지난 2000년부터 벼에 음악을 들려주는 음악농법과 유기농법을 실천하고 2010년 국내 최초로 미

국 농무성(USDA)인증을 취득한 바 있다. 올해는 유기농 쌀 100t을 수출할 목표를 세우고 현지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i@

레드향, 강진 소득 작목 자리 잡을까 실증재배 거쳐 6농가 본격 수확

아열대작물인 레드향이 강진 농민들의 소득원이 될 수 있을까.

7일 강진군에 따르면 군이 농업인 소득작물로 육성중인 ‘레드향’이 지난 2014년부터 재배가 이뤄지면서 지역 농민들의 소득원으로 자리잡을 지 관심이 쏠린다.

레드향은 한라봉과 감귤을 교배한 아열 대과일로, 껍질 색이 붉고 과육 색도 진하

다. 껍질이 얇아 벗기기 쉽고 알맹이가 굵고 통통해 식감이 좋은 것이 특징이다.

강진군은 2013년부터 실증재배 시험을 거쳐 레드향을 육성작물로 선정할 상태로, 현재 6농가에서 2ha에 걸쳐 재배중이다.

강진군 질량면 레드향 재배농민인 천만 일씨도 “이맘때가 수확 적기로 찾는 소비자

가량을 수확, 2500만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진군농업기술센터 이동근 소장은 “강진외의 경우 일조량이 많고 식량토가 많아 레드향 맛이 좋다”며 “올해를 ‘농업소득 배가의 원년’으로 선포한 만큼 농업인 소득작목으로 적극 육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i@



현대삼호중 위기 극복·무재해 기원 산행 조선산업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현대삼호중공업은 올해 각오가 남다르다. 현대삼호중공업 윤문균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등 120여명은 지난 6일 무안 승달산에 올라 ‘2018년 위기 극복과 무재해’를 담은 희망 쪽지를 풍선에 매달아 날리고 있다. <현대삼호중공업 제공>

공사 중단 12년 방치 영암 임대아파트 국토교통부 ‘정비 대상 건축물’에 선정

공사중단으로 12년간 방치되면서 월출산 천혜의 경관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을 받았던 영암지역 임대아파트가 정비 기회를 맞았다.

7일 영암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 예비 사업지로 영암군 군서면 월곡리 임대아파트를 선정했다.

월곡리 임대 아파트는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타당성 조사를 거쳐 오는 5월 분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된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 2000년 4월 26일

전용면적 85㎡(32평형) 297가구 규모로 공사에 들어갔다가 지난 2005년 11월 30일 중단된 뒤 여태껏 방치됐다.

영암군은 특히 국립공원 월출산의 경관을 해치는 점 등을 고려해 재건축 추진에 노력해왔다.

영암군 관계자는 “사업주체와 협상, 토지 인수, 자치단체 추진 의지, 개발수요 발굴 등 사업성을 재분석, 분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공사가 재개되면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고 군서면 지역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환기자 jbh@

정남진 물·천문과학관 겨울방학 과학체험교실



초등학생들의 연 만들기 체험.

겨울방학을 맞은 장흥지역 학생들을 위한 과학체험교실이 오는 2월 4일까지 정남진과학관에서 진행된다.

정남진물과학관의 경우 ‘뜯쳐로 물고기 잡기’, ‘나만의 우산 그리기’, ‘연 만들기’ 등 체험활동을 마련,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으며 물과학체험실, 4D영상실, 민물고기 수족관, 파충류관 관람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정남진천문과학관은 ‘3D프린터 체험교실’을 운영한다. 학생들이 1시간에 1개의 완성품을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매일 오후 3시부터 진행된다.

또 겨울철 별자리 및 성단, 성운 관측 등 쏟아지는 겨울 밤하늘 관측 프로그램, 3D 애니메이션 영화 관람 기회도 제공된다.

장흥군 관계자는 “가족과 함께 과학체험을 통해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전남도립대 장흥캠퍼스 축산사업소 활용

장흥군, 3층 본관동 전남도에 무상사용 허가 받아

옛 전남도립대 장흥캠퍼스가 장흥군 축산사업소로 사용된다.

7일 장흥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안양면 기산리 일대 전남도립대 장흥캠퍼스 부지를 축산사업소로 사용키로 하는 유

지관리 계획을 마련, 추진중이다. 군은 신입생 유치와 학생수 감소로 개교 5년만인 지난 2005년 폐교된 전남도립대 장흥캠퍼스 부지(3739㎡) 중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본관동(942㎡)을 군 산하시설인 축산사업소 사무실로 활용키로 하고 전남도에서 무상사용허가를 받았다.

장흥군은 또 수도사업소 등 일부 실·과·소 이전도 시급히 추진하는 한편, 본관동 외에 남·여 기숙사동의 경우 리모델링을 거쳐 최근 개원한 통합의료병원 숙소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장흥군은 이같은 계획을 반영한 예산안(2억1000만원)을 마련, 올해 추가경정 예산으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전남도립대 장흥캠퍼스는 지난 1999년 3월 장흥도립전문대학으로 개교된 이후 2003년 담양도립대 장흥캠퍼스로 바뀌었다가 지난 2005년 2월에 폐교됐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북구, 삼각동 토지

- 광주 북구 삼각동 209, 209-1번지-답 203평 147-4, 11번지-대 231평 147-15번지-전 83평
- 아파트 예정 후보지 1순위 지역
- 매매 - 9억 3000만원 (평당 180만원)

공산면, 대지

- 나주시 공산면 금곡리 877-2
- 1층, 대지 42평, 건물 24평
- 농협주유소 바로 앞, 도로접합
- 혁신도시에서 10분거리
- 매매-4200만원

나주, 다도면 임야

- 나주 다도면 판촌리 산191-17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전원주택 허가 필
- 매매 - 8억 5000만 (평당 60만원)

비금도, 팻섬

- 신안군 비금면 죽림리 산3,
 - 임야 14010평, 보전관리지역
 - 단독섬, 무인도, 향후가치 100억
 - 매매 - 14억 (타 부동산 교환가)
- 분할매매가

콘도 / 무인텔

- 전남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748 도곡 관광온천지구 내, 숙박시설
- 대지 2980평, 건물 1055평 (2013년 준공)
- 3개동, 객실 52개, 각 호실 개별등기
- 감정가/시세 60억, 매매 - 협의

거문도,펜션부지

- 여수시 삼산면 서도리 1250
- 토지 400평, 계획관리지역
- 도로접, 코너, 전망좋은
- 매매 - 1억 6000만원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20층중 15층, 15평
- 전망좋은, 주거겸 사무실
- 내부울수리, 즉시 입주가능
- 매매 - 3,600만원

중동, 근린상가

- 광양시 중동 1888-1
- 6층중 4층 전체, 210평
- 시세/감정가 - 13억, 전망좋은
- 모든업종 오픈가능
- 보 1억에 월 300만원 임대가
- 매매 - 8억 3천만원

주인직매 010-3605-5000